

참선의 힘 절로 느껴... 생활선 지도

산문박의 禪

공학박사 박희선 씨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평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 그 성공은 개인과 사회에 만족과 이익을 줄 때 행복으로 이어진다. 동서와 고금을 걸쳐봐도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의 귀결은 무병, 장수와 안락인 것 같다.

참선노트 10여권

서울대 교수를 역임한 공학박사가 만76세의 고령에 히말라야산맥의 해발 6천4백76m 메라피르봉 등정에 성공했다. 그것도 한국인으로 최초이며 산소 호흡기를 끼지 않고 단 한명의 셀카만 동반한 최고령 등반자로 기록된 것이다. 그는 태극기를 꽂은 히말라야 정상에서 가장 먼저 결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선을 했다. 그리고는 "평소 참선을 공부해 건강을 다져온 덕분"이라며 "참선의 위력을 이번엔 확증했다"고 자신있게 소감을 말했다.

이처럼 무병, 장수 게다가 인간 체력

을 찾아 구법에 나섰다. "선이란 무엇입니까" 통도사 극락암 경봉스님은 갑자기 그의 손을 잡아다 당신 손바닥으로 그의 손바닥을 찰찰 치시고 "이것이 선이야" 하고 미소지으셨다. 93세로 수덕사에 계신 해암스님께서 서울에 오셨을 때 또 여쭙었다. "자동차는 운전기사가 모는데 당신은 누가 모는가?" 해암스님의 답이다. "미이라 잡이가 미이라가 된다"고 했던가. 이후 그의 일상에서 참선을 빼고는 한가지도 생각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참선을 빼고는 모든 일을 능률적으로 해낼 수 없었다고 강조한다.

과학자로서 그의 주요연구의 핵심은 거의 참선중에 성취되었다고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한다. 흔히 사람들이 직감 또는 영감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바로 이 직감을 참선의 전매특허라고 주장한다.

직감. 그는 참선중에는 수없이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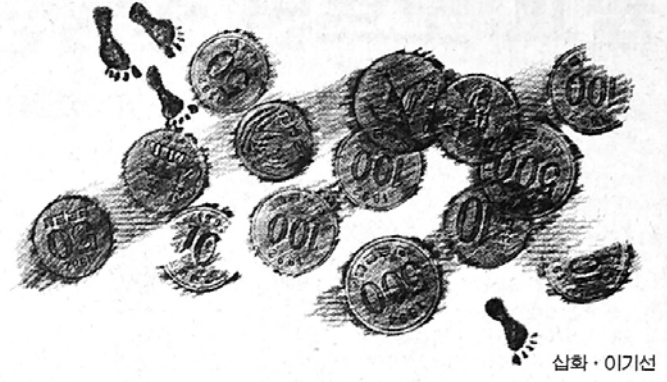
다시나 한다. 말그대로 행주좌와(行住坐臥) 항상 그렇게 숙워고 있다. 그래서 감기조차 걸리지 않았고 더구나 노이로제, 정신불안이나 고혈압으로 앓아 본 바가 없다는 것.

'슈퍼아이큐' 개발

선의 세계는 불립문자(不立文字)라는 말이 있다. 경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이며 이론보다는 체험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참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이들 중에는 선 체험의 세계는 논리를 초월한 세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 자칫 일반인들에게 선이란 열리지 않는 문과 같은 인상을 주기 쉽다. 바로 이런 점을 해결하는 것이 '참선 과학자'인 그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참선의 경지인 무념무상, 즉 정신통일의 상태에 들면 능력이 탁월해지는데 이 경지에 도달하는 건 시간을 더욱 단축시킬 과학적 방법은 무엇일까" 이

것이 그의 화두였다. 그래서 짧은 인생을 건강을 유지하며 더욱 능률적으로 활동하여 위대한 업적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참선을 보급하는 일에 몰두했다. 그리고 뇌파실험을 통해 참선상태를 과학적으로 구명하는데 전념했다. 마침내 88년 전자파 방사를 이용해 인간의 뇌파를 참선상태로 변화하게 하는 '슈퍼아이큐'를 개발했다. 또한 7년전부터 자신의 집에 참선방을 내고 '수요회'를 열었다. 백여명의 회원이 수요일이면 모여 수련을 하고 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바로 화장실을 다녀오고 50분간 참선한다. 조반후 고문으로 있는 강간의 과학기술총연합회 사무실로 출근, 4시경 퇴근한다. 저녁에는 독서하고 집필한다. 인생을 바퀴놓고 젊음까지 되찾게 해준 참선에 고마워하면서...

위영란 기자



돈의 노예가 된 '盧씨 묵비권'

미증유(未曾有)라는 말이 있다. 지금까지 없었던 일. 엄청난 일이란 말이고 경천동지의 일을 말한다. 미증유는 희유한 것이 불가사의한 것이다. 사람이 놀라고 하늘이 놀라는 일이다. 사람은 신뢰질이 발달하여 구피질만 있는 원인원과는 판이한 차이가 있다. 신뢰질은 사고나 기억, 추리와 논리를 구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구피질은 경험적 반복행위는 할 수 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일정한 차이가 있음은 바로 신뢰질의 뇌운동에 비롯하는 것이다. 아메바는 신경세포만 있고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등은 구피질적 뇌로 된 원인원에 이른다. 이 원인원에서 더욱 진화하면 인간이 되는데 여기에 신뢰질적 대뇌, 소뇌, 간뇌 등 일체의 뇌세포가 발전되어 사고, 추리, 판단, 기억, 후회, 사비 등을 가림하는 의식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동하면 기억을 숨길 수 있다.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과 숨겨두자는 생각이 활동할 때 숨겨두자, 가만히 있자, 덮어두자 등의 열력을 굳히면 드러내는 생각이 죽어버린다. 이 모두가 열력의 작용이다. 과거를 들추어 내는 생각보다 지금을 복잡시켜보자는 의식이 발전하면 '기억이 없다'고 말이 불거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하여 썼다고 눈물을 떨구면서 고백한 사람이 비자금의 용도에 대하여, 검찰의 날카로운 심문에 난대없이 '모른다' '기억이 없다' '말할 수 없다'라고 답하였다고 하니 우리들도 망각증이 율까 겁이 난다. 천문학적인 수치, 온 국민이 경악하는 분노, 세계가 손가락질 하는 사건, 정말 전대미문의 미증유한 비자금.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 모으려고 하였을까. 그리고 모을 때와 모으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되었는가. 시작하는 생각과 마친 일에 대한 사람이 다른 사람인가. 어떻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심문과 정에서는 일관성 있는 논리적 응대를 하였는가. '모른다' '기억이 없다' '말할 수 없다' 이것은 교묘한 부정의 논리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렇게 답하면 좋지 않을까. '안다' '생생하다' '말 다 했다' 얼마나 분명하게 과거의 일을 생생하게 다 알아서 말 다 할 수 있는 정말 보통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연극하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으니 답답하다. 우리는 왜 이다지도 박복한가. 굴절스럽고 역사가 섬기는 대통령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는 민족.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우리는 뉘의 민족인가. 중요하고, 원만한 가득한 민족인가. 어떻게 보통사람임을 주장하던 대통령이 '모른다' '기억이 없다' '말할 수 없다'만 되풀이 하는 비자금, 비리, 뇌물, 특혜의 통치자를 또 가슴속에 원한(怨恨)의 비명을 세워 중오의 푸른불을 흘려야만 하는가.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50
전노(錢奴)

비리·뇌물 통치자는 진실 말해야

가장 중요한 물음에 대하여 "모른다" "기억이 없다" "말할 수 없다"라는 세가지의 대답을 하였다면 한번 생각하여 보아야 한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행위에 있어서 무경험일 때나 아니면 무지의 상태에 있으면 그것은 확실하게 "모른다"고 말하여야 한다. 상식적이고 보통사람이라면 "모른다"는 말을 쓰면 거짓이 된다. 어떤 행위가 하였는데 행위를 처음에서 끝까지 순순히 회여할 수 없는 상태를 "기억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재생시키어 명확하게 발표하는 논리가 미려한 상태를 말할 것이다. 이중성의 의식이 발

터져 나온다. 막가는 말인지 모르겠다.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육진동보다 무서운 말이다. 자신의 행위를 자인하고 있지만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행위의 부당성을 은폐하기 위하여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말할 수 없다" 여기에는 행위에 대한 선악을 감지하고 있는 것이며, 행위의 경형성이 선재하여 있어도 일관 부인하는 의지로써 "말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침묵한 것이다. 이런 글은 참으로 쓰기 싫은 글이다. 통치권자라 자처한 사람, 보통사람, 믿어주세요 라고 상습적으로 뇌이던 사람이 통치자금으로 5천억을 조성하여 나라를 위하여,

말해야

"부처님 삶 열심히 흉내내는 것이 참선 지름길" 76세 나이 잇고 히말라야 無산소 등반 '보람'

과 정신력의 한계에 도전해 성취한 행복인 사람 박희선박사. 그가 참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1969년 만50세 때다. 사실 그는 선의 철학이나 깨달음을 얻고자 시작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당시 실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었다. 국내에서는 급속공학의 제일인자로 자처하는 서울대 교수가 일본에 박사학위 따라 갔다가 실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황당해할 즈음이다. 그때 신문광고에 난 '禪'이란 낱말을 보았고 그야말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선과 만났다. 95세의 경산(景山)스님 문하에서 참선을 배웠고 정신과 육체에 큰 변화를 체험해 현실적인 어려움도 해결했다. 또 경춘(耕春)이라는 법명도 받았다. 이순(耳順)이 낡는 나이에 일본에서 참선을 통한 새 삶을 시작한 것이다. 일본유학 5년동안 학문으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참선으로 배웠다고 고백하는 그는 귀국하자마자 큰스님들

직감을 받는다. 그래서 참선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노트와 펜을 옆에 준비한다는 것. 어떤 아이디어가 번개같이 뇌리에 번뜩일 때는 그 즉시 '참선노트'에 옮긴다. 이렇게 해서 쌓여진 그의 참선노트가 10여권이다. "참선은 부처님 흉내를 열심히 내는 것"이라는 은사의 가르침을 새기며 살아온 그는 참선할 때 자세와 호흡을 특히 중요시 한다. 코와 배꼽을 일직선상에 놓고 결가부좌든 반가부좌든 두 무릎을 펴바다에 닿게 하며 몸의 중심은 등뼈의 끝부분을 연결하는 정삼각형의 중심에 떨어지도록 자세를 조정한다. 호흡은 횡수를 감소시켜야 하는데 방법은 전신에 힘을 빼고 가늘고 길게하되 내뿜기를 천천히 하는 것이다. 이때가 가장 정신통일이 되는 상태이며 잠재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데 따라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 가장 정확한 판단력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그는 특히 참선호흡운동을 언제 어

財團 韓國 佛教 法輪宗 二世 宗正 推戴 法會 案內

宗正法語

濁清染淨無差別 憎愛美麁豈思量
生滅本非眞面目 遠離塵境意堂堂

맑고흐림 본바탕이 차별없는 한자린데
밋다굽다 좋고나쁨 굳이따져 무엇하랴
나고죽고 하는것이 본래면목 아닐진댄
분별심을 여인자리 일체경계 통하리라

歸依三寶하옵고,
佛日이 增輝하고法輪이 常轉하여 佛國土 建設에 다시없는 거룩한 機會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부대중의 所營佛事가 하루速히 無障成就하시기를 仰祝하나이다. 就棟 오는 二十日은 우리 宗團의 二世 宗正 釋一華 大宗師의 推戴法會를 奉行하는 날입니다. 多事多忙하실줄 변연히 헤아리면서도 廉恥不顧하고 이에 招請하오니 자라나는 宗團을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복돋아 주시는 敦厚하신 配慮下에 掃萬枉臨하시와 자리를 빛내 주시옵기 懇望하나이다.

- 日 時 : 佛紀 2539年 11月 20日(月) 11時
- 場 所 : 江南 리베라 호텔 대연회장
- 問議處 : 총 무 원 (02)733-4445~6
리베라호텔 (02)541-3111

財團 韓國 佛教 法輪宗 二世 宗正 推戴式 奉行委員會

奉行委員長 釋 慧 牛 合掌
總務院長